

8/27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(갈라디아서 5:22~23)

これに対して、^{れい}霊の^{むす}結ぶ^み実^{あい}は愛であり、^{よろこ}喜び、^{へいわ}平和、^{かんよう}寛容、^{しんせつ}親切、^{ぜんい}善意、^{せいじつ}誠実、^{にゅうわ}柔和、^{せつせい}節制です。これらを禁^{きん}じる^{おきて}掟はありません。(ガラテヤの信徒への手紙5:22~23)

오	직	성	령	의	열	매	는	
사	랑	과	희	락	과	화	평	과
오	래	참	음	과	자	비	와	
양	선	과	충	성	과	온	유	와
절	제	니	이	같	은	것	을	
금	지	할	법	이	없	느	니	라
(갈	라	디	아	서	5	장	22 ~ 23
절)							

오	직	성	령	의	열	매	는	
사	랑	과	희	락	과	화	평	과
오	래	참	음	과	자	비	와	
양	선	과	충	성	과	온	유	와
절	제	니	이	같	은	것	을	
금	지	할	법	이	없	느	니	라
(갈	라	디	아	서	5	장	22 ~ 23
절)							